

## 신영호 · 신은수(재임 전후 노무현 대통령 담당 이발사父子)

### 1차 구술

1. 구술자: 신영호, 신은수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0월 20일
5. 구술장소: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이용원
6. 구술분량: 09분 5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서거 9일 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이발

신영호 : [퇴임하시고] 처음에 제가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봉하마을을 갔었습니다.<sup>1)</sup>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저(이제) 차를 한잔 나누면서 [대통령님이] ‘아직도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통령님이] ‘이발하러 갈게요’ 그래서 아들을 소개를 했드렸더니 ‘교수(신은수 씨)한테 머리 깎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면담자 : 신은수 선생님한테 대통령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시던가요?

신은수 : 처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뭐, 대통령님이라고 긴장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옆집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차 마시고 나와서, 제일 처음 그렇게 뵈고 나왔고요.

면담자 : 대통령님 퇴임 후에 인제 아드님 신은수 선생님께서 이발을 하시게 되는데 롯데호텔로 여러 번 나오셨나요?

신은수 : 처음에 퇴임하시고 오(5)월 정도까지는 봉하마을에 제가 갔었던, 갔었구요.

신영호 : 출장 이발을 갔었지요.

신은수 : 사저에 뭐 한, 두 평 정도. 한 평 반, 두 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 있어서

---

1) 구술자 신영호는 1988년 제13대 총선 출마자로 처음 만난 이후 대통령 재임 이전까지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발을 담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둘의 만남은 노 대통령 퇴임 후 다시 이어졌다. 관련내용은 노무현사료관의 구술이야기 ‘부산의 이발사 부자(父子)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이발’에도 공개되어있다.

거기서 처음에 [이발을] 하셨고요.

면담자 : 아, 처음 이발할 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신영호 : [웃음]

신은수 : 처음에, 사저에 처음 갈 때는.

신영호 : 생뽕이 낫답니다. [웃음] 겁을 먹어가지고. [웃음]

신은수 : 정말 평소에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들어가면서 인제 경호원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이제 가방에 뭐 있는지 또 보고 뭐, 가방[이라고] 해봐야 가방 안에 이발 도구가 전부 단데(다인데) 이발 도구가 사실 흥기거든요 다들. 그래, 뭐 그럴다고 못 들고 가게 할 수 없지마는 일단 확인하고 한 평 반, 두 평 되는 작은 공간에 먼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른 분들을 접견이 있어서 그 한 삼십(30), 십오(15)분 이십(20)분에서 삼십(30)분 정도 시간에 많은 생각했구요.

제가 대통령님 처음 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상 구조도 브러싱(Brushing: 커트 전에 모발을 빗는 것) 하면서 알아야 되겠고. 브러싱 하면서 탈모가 된 부분이 있는지, 어디가 솔이 많고 어디가 영성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check)하거든요. [대통령님이] ‘어, 잘 부탁해.’ ‘예. 대통령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게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합니다. ‘[저에게] 세 번은 최소한 맡겨주십시오.’

신영호 : [웃음]

신은수 :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커트(cut) 해드리는데 대통령님의 스타일(style)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있지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몰라서 ‘세 번만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 그래, 약속할게. 잘 부탁해’ 하시면서 이제 커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뽕뽕 깎으면 어떨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영호 : [웃음]

신은수 : ‘예, 예. 뽕뽕 깎으셔도 되는데... 됩니다. 하지만 지금 퇴임하시고 뽕뽕 깎으시면’ 밖에서 지금 대통령님 커트 시작했는데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저 밖에서.

신영호 : 관광객들이.

신은수 : ‘지금 뽕뽕 깎고 나가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민들한테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이미지도 아닙니다. 다듬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듬어드리고. 이제 나가실 때 ‘아 진작에 대통령 할 때도 이렇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해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님의 권위라는

게 있고, 보여 지는 분하고 자유인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 알았어.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좀 해 달라’ 고 하시고 나가셨죠. 그러고 빗질하고 나머지 정리정돈을 하는데,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았거든요.

신영호 : 긴장 풀리니까 [웃음]

신은수 : 러닝셔츠, 팬티 다 젖고

신영호 : [웃음]

면담자 : 그러면 신은수 선생님하고 이발하실 때는 주로 어떤 애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신은수 :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대통령님 시절에는 아무도 잘 못한다는 독대죠. 네, 커트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시니까. [웃음]

신영호 : 자부심 [웃음]

면담자 : 독대 맞아요.

신은수 : 주로 환경 이야기가 반 이상이었고요. 뭐 샴푸를 쓰시는 거나 비누를 쓰시는 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게 환경오염이 덜 되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경제 이야기, 경제는 요렇게, 요 정도하면 일반 서민들한테. 국가경제는 거시경제지 않습니까, 저희들 서민들은 잘 모르는 큰 경제기 때문이고 부분은 한 번씩, 설명 한 번씩 해주셨고요. 국가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뜸 질문을 하시는데 ‘국가부채요? 대통령님 사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서민들은 부채 많으면 힘들어합니다. 나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돈이 지엔피(GNP:국민총생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역량만큼은 항상 빛으로 갖고 가지 않느냐. 신 선생, 어 자네 연봉만큼은 빛이면 다 갚을 수 있잖아.’ ‘근데 연봉만큼 빛이면 다 못 갚는데요? 서민이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말씀드리니까 국가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 몇 프로(%) 정도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차관이라든지 빚을 지는 것도 국가 원수들은 가능한 거 같다 그런 이야기. 가정경제랑 국가경제와의 차이점 한 번씩 이야기해주셨고. 거의 뭐 환경, 뭐 농사짓는데 요즘 어떨다 말씀해주시고. ‘야, 처음에 내하고 그 봉하마을 사람들이 농사 안 지을라 그러더라(그러더라).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어깨만 흔들고 다니고 농사 안 짓는 줄 알고 안 할라 하더라.’ [그런] 서민적인 이야기 ‘근데 농사지으세요?’ ‘나 농사지어야지, 나도 그래야 먹고 살지.’ 거의 뭐 옆집 동네 아저씨가 하시는 것처럼. 큰 이야기하셨

다가 옆집 아저씨 이야기처럼 하셨다가. 주로 환경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던 거 같아요.

면담자 : 신은수 선생님께서 마지막 이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은수 : 그때가 오(5)월 달이었고요, [대통령님이] 제일 힘드신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한참 검찰 소환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커트 하시면서 ‘내가 잘돼야 다른 내 주위 사람들이 다들 편하고 잘될 텐데,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다. 신 선생도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 전에 항상 [부산으로] 나오셔서 커트 하시다가, 그때는 여의치가 얇으셔서 [제가] 사저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원체 방송국 카메라도 많고, 평소 같으면 차를 일정한 데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가방 큰 거 들고 걸어서 들어가면 또 카메라에 의심받을까, 고통 받을까 걱정하셨는지 경호관 사저로 가서 경호관 차를 타고 사저로 들어가서 커트 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잘돼야 될 텐데’ 하시는 말씀하셨고. 커트 끝나고 나시면 평상시에는 대통령님 혼자서 [나가시고] 커트를 끝내면 저도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 [이발도] 좀 부탁한다’ 고.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헤어스타일 (hair style)을 잘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출근해서 [서거하셨다는]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잘 부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고 나가시면서... 평소에는 커트가 끝나면 나가실 때 콧노래 부르시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콧노래도 안 부르시고, 그냥 조용히 가시고 했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벌써 정리를 하고 계셨는가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면담자 : 그때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은수 : 구(9)일 전에. 서거 구(9)일 전이니까

신영호 : 마지막 이발이었지요.

면담자 : 예, 그러시네요.

신은수 : 그러고 소식 듣고 많이, 많이. 한쪽에서 많이 울었죠.

## ■ 구술자 주요이력

신영호 / 이발사

1944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다. 해군 복무 중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부

산에 자리 잡으면서 광장호텔, 롯데호텔 등에서 이발소를 운영해왔다. 2011년 구술 당시 “50년 가까이 이발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신은수 / 이·미용학 교수, 신영호의 아들

대구 카톨릭대학 졸업 후 ROTC 복무를 마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미용학을 공부했다. 미용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박사 과정은 유전학을 전공했다. 2008년 기능장(이용장) 자격을 취득했다.

부산정보대 전임강사 시절에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발을 맡았으며 2011년 구술 당시에는 경주 서라벌대에서 강의했다.

구술자 신영호와 신은수는 재임 이전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이발사 부자(父子)다. 1988년 제13대 총선 선거운동 중이던 어느 날, 노무현 후보는 신영호가 운영하는 부산 광장호텔 구내 이발소를 처음 찾았다. 이후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3년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를 찾는 단골손님이 됐다. 미용학과 교수로 1997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부산 롯데호텔 이발소를 운영해 온 아들 신은수는 퇴임 후 봉하마을에 인사를 갔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 대통령의 전담 이발사가 됐다.